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이번에 금리 동결.... 올해 한번더 인상 계획
- Bloomberg: BofA, “계속적인 소비 지출로 미 침체 없을 듯”
- CNN Business: 연방 부채 33조 불 초과... 섀다운 가능성 커져
- Bloomberg: 거의 1백불 오일, 인플레이와 싸우는 중앙은행들에 ‘골치’
- Bloomberg: 미 소기업들, “고금리 타격 계속 될 듯”

[COVID-19]

- CNBC: 가을 백신 접종 순탄치 않아... 일부 환자들 보험 지연으로

[뉴욕]

- FOX5: 뉴욕시 주차요금, 10월부터 20%까지 인상

[자동차 파업]

- NYT: 전미 자동차 노조, 앞으로 ‘파업 확대’ 경고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 호텔들, 종업원 23만 8천명 감소
- Bloomberg: 구글, “아마존에 디지털 광고 수입 빼기고 있다”
- CNN Business: 디즈니, 테마파크에 투자 두 배로 늘려

[보고서]

- HBR: 고객들에게 솔직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방법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Holds Rates Steady but Pencils in One More Hike This Year

연준, 이번에 금리 동결.... 올해 한번더 인상 계획

- 연준은 오늘 수요일 금리를 22년만에 최고치인 현재 금리를 동결키로 했으나 인플레이를 막기 위해 올해 한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시사했다.
- 즉,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 범위로 유지했지만, 올해 금리 전망치는 5.5~5.75% 범위로 유지하여 올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시사했다.
- 또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임에 따라 대다수의 관리들은 내년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 오늘 연준은 이틀간의 정책 미팅을 마쳤다.

WSJ 기사

Bloomberg: Bank of America CFO Says Recession Hard to See With Consumers Still Spending

BofA, “계속적인 소비 지출로 미 침체 없을 듯”

- Bank of America의 CFO가 언급하기를 미 소비자 지출이 견조한 상황에서 미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희미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 그는 “미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4%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침체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매우 작은 경기 침체도 물러났다고 할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 Borthwick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데빗카드와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면서 여전히 상품과 여행에 지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소비자 자산의 수준도 강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US debt rises to \$33 trillion as government shutdown looms

연방 부채 33조 불 초과... 섯다운 가능성 커져

- 연방 부채가 33조 달러를 상회하고 정부 섯다운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월 스트리트가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섯다운은 이미 높은 휘발유 가격, 자동차 노조 파업, 높은 인플레이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심지어 경기 침체 가능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지난 3개월 동안만해도 연방 부채가 1조 달러 증가했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Oil Nearing \$100 Is Red Flag for Central Banks' Inflation Fight

거의 1백불 오일, 인플레이와 싸우는 중앙은행들에 ‘골치’

- 배럴당 1백불에 가까운 유가 상황은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팬데믹과 러시아 전쟁으로 예고된 변동성의 시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오일 가격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계속 더 지속될 것인지 이번 주 워싱턴 DC.에서 모이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직면한 문제다. 유가가 소비자 물가 인상을 야기 시키고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은 당초 인플레이 리스크가 당분간 금리 인상을 중단할 만큼 완화될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테스트 하게 될 것이다.
-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결국 올해 4번째 분기까지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의미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최대 0.9% 포인트, 유럽과 영국에 0.4% 포인트 여파를 줄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Small-Business Owners Say Damage From High Rates Will Persist**미 소기업들, “고금리 타격 계속 될 듯”**

- 미 소기업체 대표들의 반 가량은 “지난 18개월간의 고금리가 수익, 매출, 성장에 타격을 주었다”고 Alignable가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 이들은 비즈니스가 개선되기 위해 금리가 크게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번 설문은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7천4백여명의 대상으로 했다.
- 응답자 3분의 2 이상은 금리가 최저 3% 포인트 떨어져야 그들이 비즈니스 활동이 다시 반등할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COVID-19]**CNBC: Fall Covid shot rollout gets off to a bumpy start as some patients see insurance delays****가을 백신 접종 순탄치 않아... 일부 환자들 보험 지연으로**

- 한마디로 일부 환자들의 경우 접종에 대한 보험 커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지난주에 출시된 파이저와 모더나 새로운 백신은 보험 회사들과 메디케어 등 정부 보험에서 커버되어야 하는 접종이다.
- 최근 소셜 미디어에 올라간 수십건의 게시물을 보면 일부 환자들의 경우 약국에서 접종받는데 125불에서 1백90불까지 지불했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보험으로 아직 백신 접종 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CNBC 기사

[뉴욕]**FOX5: NYC's parking meter rates set to rise by 20% starting in October****뉴욕시 주차요금, 10월부터 20%까지 인상**

- 10월이 시작되면서, 뉴욕시가 주차요금을 20%까지 올린다.

- 인상률은 보로(borough)와 이 보로와 인접한 특정 지역에 따라 차별화될 예정이다.
- 연방 교통부는 주차 밀집을 완화하고 운전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주차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 새로운 주차요금에서 발생한 수입은 도시기금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 미드타운과 맨해튼의 첫 시간에는 22% 오른 5달러 50센트, 두번째 시간에는 20% 상승한 9달러, 총 두시간은 21% 오른 14불 50센트다.

FOX 기사

[자동차 파업]

NYT: U.A.W. Threatens Strikes at More Plants**전미 자동차 노조, 앞으로 '파업 확대' 경고**

- 전미 자동차(UAW) 노조원들은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추가적인 지역에서 파업을 금요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어제 화요일 말했다.
- 노조는 4년간에 걸친 40%의 임금 인상과 더 나은 복지 및 기타 요구사항들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업체들은 그의 절반 정도의 임금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로운 노조 위원장인 Shawn Fain은 이번주 말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NY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Why US Hotels Are Missing More Than 238,000 Employees**미 호텔들, 종업원 23만 8천명 감소**

- 호텔과 리조트는 팬데믹 기간동안 적은 수의 직원들을 고용했었다.
- 코로나 때 도입된 키오스크와 줄어든 호텔 직원의 수는 높은 임금과 지속적인 공실률에 대처하기 위한 숙박업체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 다른 산업군의 고용률은 현재 2020년의 수치를 넘어섰지만, 현재 숙박업의 종업원 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 보다 23만 8천여 명 더 줄었다.
- 정보 서비스 회사인 Questex에서 숙박, 여행 그리고 복지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Alexi Khajavi는 기업들이 이런 상황을 운영효율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으며,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ogle Says Digital Ad Budgets Are Shifting to Amazon 구글, “아마존에 디지털 광고 수입 뺏기고 있다”

- 알파벳의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선두주자 이지만 이같은 지위를 뺏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구글의 광고 담당 부사장인 Jerry Dischler은 어제 화요일 구글에 대한 연방 반독점 관련 재판에서 “구글이 모든 광고주의 필수 회사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그는 “우리는 틱톡과 아마존 같은 새로운 진입 업체들에게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고 답했다.

Bloomberg 기사

Disney is doubling its investment into parks 디즈니, 테마파크에 투자 두 배로 늘려

- CNN Business: 디즈니가 테마파크와 크루즈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기업 관계자가 말했다.
- 이번 주에 열리는 투자자 회의에 맞춰 디즈니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디즈니는 디즈니 파크, 체험 그리고 제품분야에 6백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는 최근 10년간 지출한 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이번의 투자는 디즈니가 국제 테마파크를 제외한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 그리고 방송 자산에서 실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HBR: How to get Honest and Substantive Feedback from Your Customer 고객들에게 솔직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방법

- 전 세계 레스토랑에서는 소위 “체크인 댄스(check-in dance)”라는 것을 종업원과 손님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은 손님들이 음식을 받은 후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손님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답한다.
- 손님의 솔직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식당은 영업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발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1. 솔직한 피드백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생산적 상호작용(Productive interactions)을 처음 정의했던 Chris Argyris는 사람들

이 갈등 속에서 대부분 회피하는 걸 선택한다고 한다. 이런 회피는 식당에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 2. 피드백의 여파가 너무큰 경우: 이 경우는 피드백이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공개되는 경우 특히그렇다. Elizabeth는 최근에 작은 기업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남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의 피드백이 그 사업체가 가진 문제점들을 폭로하게 되는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가져올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 3.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몇몇 고객들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식당을 통해 계속 예를 들자면, 주방직원이 음식을 더럽히는 끔찍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떤 고객들은 솔직한 피드백이 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걱정해 피드백을 남기지 않기도 한다. 사실 이런 상황은 고객들은 서비스나 제품보다는 비즈니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피드백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세가지 방법이 있다. 1. 평가가 아닌, 개선이 피드백의 목표가 되도록 하라: 많은 기업들은 고객 피드백을 종업원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고객 서비스 직원으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최고점으로 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종업원의 문제가 아니며 피드백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피드백 질문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드백의 목적이 평가가 아니라 개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 아닌,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고쳐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라고 묻는 것이다.
- 2. 고객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가 아닌,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라: 고객들은 생각과 감정을 잘 들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고객들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빈도나 방문빈도를 살펴보거나, 사업장 내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는 것이다. 또는 어떤 메인 요리가 반쯤 먹고 남겨지는지, 깨끗하게 비어 있는지 확인한다. 체계적으로 고객들의 행동 피드백을 확인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을 추적한 데이터 분석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원들의 의미심장한 목격담을 종합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한 예로, 커피 가판대의 직원이 고객들이 컵을 냅킨으로 감싸는 것을 봤다면, 그 컵이 너무 뜨겁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말이다.
- 3. 형식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라: 서비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꺾을 수 있다. 이는 고객들이 아무 언질도 없이 다신 가게를 찾지 않도록 만든다. 이런 경우는 피드백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한 해에 두번이나 분기마다 진행했던 기계적인 피드백을 바꿔 지속적이고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HBR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동결전망 99%' 속 美 금리결정 회의...연준 경제전망 주목

점도표상 장기 금리전망 상향시 '2% 넘는 인플레이 용인' 해석 가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를 찾기 위해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내봉을 경제전망을 주시하고 있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인상 폭을 발표하고, FOMC 위원들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점도표)와 경기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19일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국면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견해도 우세하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